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오후1:30에 감사찬양제가 열립니다.

: 이번 주 수요일집회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11월6일(목) 오전9:30에 교회 김치를 담급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제3회 청파교회 전교인 환경세미나를 합니다. 일시는 11월 9일(둘째 주일) 오후1:30분, 장소는 교육관입니다. 주제는 <생협이야기>로 생활협동조합의 의미와 대안적인 소비실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박상욱 씨와 임서영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8일(토) 오후1:30, KBS 신관 예식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는 '덕분네'입니다.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건넵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 3:7~17 / 시 107:1~7, 33~37 살전 2:9~13 / 마 23:1~12
--

막 6:1-6

오늘 식당 봉사 : 박홍재 차혜심 광권희 정연희 한상경 김명순 최철수 장혜숙 정현선 정영례 양정화 박진숙 추헌영 유병선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왕영순 김문주 정선희 한성건
오늘설거지봉사 : 환경부
다음주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
떡 대 접 : 오미경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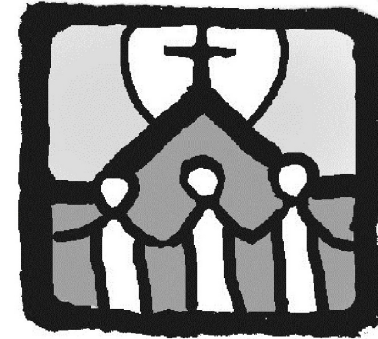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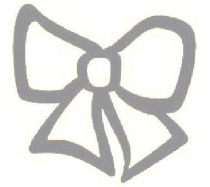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기쁨 받아 주십시오. 온 땅의 생명들이 서로서로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소유와 성취를 향해 달음박질하며, 늘 결핍과 불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헛된 목표를 향하여 바삐 뛰느라, 주님께서 주신 멋진 가을도, 내 결의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교제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박한 삶에서 만족을 찾고, 이웃과 동행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일궈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기욱	강세기	이소혜	강순배	곽상준	최경미	권혁순	박혜경	김금순
김문주	김범진	김미현	김숙현	김순자	김승현	김수진	김영아	김인걸
문영혜	김정진	김혜정	김정훈	이진영	김주영	김현동	김홍기	문홍일
민지혜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상욱	박옥순	박준희
이기분	방문성	박혜경	방민	안세진	안종일	정현주	오미경	오상희
오자영	오재형	임고운	오진훈	노순옥	윤주원	최윤선	이건우	이계숙
이봉옥	이상준	이용현	이자영	이재삼	전정현	이종현	이주경	임서영
임승동	백혜숙	임주빈	최현옥	장아름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장재영
김재영	전인섭	정복순	조순덕	최재욱	이수정	최종원	추현영	하현철
최성애	한기택	한상균	한완식	임정자	허준호	홍소형	홍소형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강순배	김진중	김태정	김필순	문금석	박병구	방문성	박혜경	신미라
이범석	류정욱	이인웅	이주경	이희원	임영	정경례	정현모	권정연
한성건	정지혜	홍현배	김에스터	황현성	이오복	나오미1	선교회	
나오미2	선교회	무명10						

생일감사헌금

조항범

녹색꿈헌금

김범진 김미현 김향자 박호규 강영님 윤미경 윤수진 무명5

추수감사헌금

이계월 이우상 조경자 무명7

	백	혜	숙	박	성	희	정	두	리	박	영	희
	신	진	식	최	경	미	심	심	희	이	은	옥
	장	영	숙	신	영	신	이	명	희	장	미	경
	노	순	옥	진	정	숙	백	심	현	조	병	주
	박	홍	재	박	홍	재	허	요	현	문	복	순
	권	미	숙	박	미	영	김	정	윤	교	회	
	김	금	순	김	금	순	허	김	순	이	봉	옥
	곽	권	희	윤	수	진	김	윤	김	이	정	은
	안	홍	숙	오	현	정	윤	김	명	안	홍	숙
	정	영	선	홍	홍	춘	홍	홍	춘	김	정	혜
	박	혜	경	박	혜	자	백	성	래	정	현	숙
	김	재	흥	오	혜	영						
	김	재	흥	송	자	운						
	이	범	석	이	형	영						
	이	범	석	곽	진	영						
	신	진	식	윤	상	준						
				윤	성	중						

참빛 찬양대와 함께하는 감사의 오후

참빛 찬양대	지휘 안홍숙 / 반주 김수진
1 주께 찬양하여라	참빛 찬양대 (solo 김진경 김민화)
2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새교우 중창 (플루트 김재환)
3 기차를 타고 동백섬	하모니 중창단
4 레미제라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청과 청소년 현악4중주단 (김서영 장주연 안혜지 김하연 하인경 조해린 김경민 이현순)
5 행복을 주는 사람 Honey	참빛 중창단 (드럼 장하연 / 안무 박성희)
6 영원한 사랑	참빛 어르신 중창, 4남선교회
7 학창시절 소나무야	1,2남선교회 중창
8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참빛 찬양대 (solo 이오복)
9 보리울의 여름	청과 어린이와 참빛 찬양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환히 밝히신 은총의 빛 앞에 서십시오. 물질에 대한 욕망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에 매몰당한 영혼을 되찾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와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멘. 내 삶이 궁핍하다고 주님께 불평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감사 찬양제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성실 권사	김명희 집사 허신열 집사

11월	영접위원	한완식 강세기 정원석 이현순 이소애
	헌금위원	한상익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

경험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얼마든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수용소 생활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

안팎으로 궁지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내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강제수용소에 있어본 우리들은, 연병장에서 혹은 바라크 안에서 주위 동료들을 위로하면서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마저도 주어버리던 사람들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비록 소수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강제수용소가 다른 건 다 강탈할 수 있어도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유, 즉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또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자유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하는 생생한 증거였다.

_ 빅터 프랭클, 《삶의 의미를 찾아서》

다른 입장, 다른 행동, 다른 얼굴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것만큼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또 있을까. 가공할 환경결정론은 빅터 프랭클 앞에 백기를 들고 만다. 대학교 신입생 때 같은 과 선배가 손에 쥐어준 빅터 프랭클의 책. 그는 내게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도 없지만 인간처럼 위대한 존재도 없음을, 인간만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도 없지만 인간만큼 환경을 초월하는 존재도 없음을, 인간만큼 사악한 존재도 없지만 인간만큼 선한 존재도 없음을 알게 했다.

거듭 말하지만 이 양편의 모순을 아우르는 긴장을 거부하고 한쪽을 택하는 데에서 세상의 모든 악마성과 나이브함이 비롯된다.

말랑한 감사가 철옹성을 무너뜨린다

나는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삶과,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급진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고는 깜짝 놀랐다.

우리는 항상 더 해야 한다 - 더 관심 갖고, 더 성공적이고, 더 사랑하고, 더 재능을 갖춰야 한다 - 는 의식으로 인해 소진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선물이 충분하다는 깨달음과 함께 (삶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나는 충분해”라고 말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가진,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의 시작이다.

이는 또한 “나는 매우 충분해”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불만족의 문화 속에 우리를 마비시키는 모호한 죄악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첫걸음이 된다.

우리가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내게 주어진 충분한 선물로서 받아들일 때 삶의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변혁을 경험한다.

행복의 방편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변화를 일궈내기 위해서 지금 그대로의 내 모습과 달라지려 하거나 더 나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_ 메리 조 레디, 《급진적 감사》

유학 시절, 내가 가장 사랑했던 선생님 메리 조는 오늘날 문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만족치 못함’과 ‘당연히 여김’을 꼽는다. ‘매사에 불평’이란 말만큼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반영해주는 것도 없다. 불만족과 무감동은 우리네 모든 삶 속에 켜켜이 침투하여 거의 조건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작동한다. 이렇게 도탑게 쌓인 불만족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더 많이 욕망하고 소비하는 제국의 노예가 된다. 이런 형국에서,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송두리째 긍정하는 급진적인 감사는 제국을 붕괴시키는 게릴라전의 기본 전술이 된다.

물론 감사와 자족을 오남용한 역사를 외면할 수는 없다. 현실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골로 동원된 것이 이들 덕목이다. 기독교가 인민의 아편으로 폄하된 것은 불의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를 주문처럼 되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신 숭배와 그에 기반한 소비사회에서 감사와 그에 기반한 자족은 세상을 거스르는 저항의 몸짓이 된다. 구태의연하고 오글거리기까지 한 감사가 소비문화에 가하는 철퇴가 된다. 내가 늘 복창하고 다니듯 ‘충분하다’는 말은 소비사회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어휘다.

- 박충,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중에서